

태권도와 고통알고리즘

김학덕*(동의대학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고통과 부상 알고리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까지 적용되는 스포츠 의학을 둘러싼 문화 환경을 이해하고자 연구되었다. 몸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개체이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해하게 된다. 고통과 부상은 스포츠 훈련 중에 각자에게 유발될 수 있는 근본적인 충돌로 인해 시작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훈련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통과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에 결점을 유발하는 것은 스포츠의 전문성과 건전한 선수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스포츠화된 태권도 조직의 기능적 향상과 열광하는 소비자 문화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통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고 의학치료와 고통의 본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태권도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겪는 고통 완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위험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끌 것이다. 이는 고통과 부상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 스포츠의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태권도, 부상, 고통알고리즘, 몸

* bloosky@deu.ac.kr

I. 서 론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고통과 부상 알고리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까지 적용되는 스포츠 의학을 둘러싼 몸의 중요성에 관한 문화 환경을 이해하고자 연구되었다. 물론, 몸은 매우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스포츠화된 태권도 경기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해하게 된다. 고통과 부상은 스포츠 훈련 중에 각자에게 유발될 수 있는 근본적인 충돌로 인해 시작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훈련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통과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에 결점을 유발하는 것은 스포츠의 전문성과 건전한 선수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스포츠화된 태권도 조직의 기능적 향상과 열광하는 소비자 문화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태권도선수의 몸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학 팀, 관람소비자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윤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선수, 팀 소속사 또는 스포츠 구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통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고 의학치료와 고통의 철학적 본성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에 따라 태권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겪는 고통 완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위험과 연관된 논쟁으로 고통알고리즘을 이끌 것이다. 이는 고통과 부상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 스포츠의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1990년 초 이후로 고통과 부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스포츠사회 속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관심을 끌었다(Nixon, 1992; White et al, 1995; Young, 1993). 이는 연구자의 선수생활을 통해 얻은 실천적 경험과 이 현상의 문헌적 선행연구 즉, 고통의 개념, Kotarba(1983)의 직업상의 고통 개념을 스포츠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태권도선수들의 고통알고리즘

의 하위문화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철학적 본질을 통한 고통완화의 해결 방향성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사는 민속지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태권도선수들의 고통과 부상에 대한 문헌조사로 구성되었다. 민속지학적 연구는 이런 개념들에 통시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접근에서 시작된다. 연구자는 태권도선수들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기의 전, 중, 후 모든 지점에서 선수들의 고통과 부상에 관련된 의학 치료에 대한 철학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고통이 완화되는 알고리즘을 조사하였다. 이런 방법들은 부상당한 태권도선수들과 선수들의 스포츠 환경 사이의 알고리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I. 본 론

1. 고통의 개념

고통과 부상은 몸적이고 개념적인 본능이다. 고통은 고차원적인 현상이고 이는 대부분의 논쟁에서 부상이라는 결론을 낳았고 이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부상은 몸 구조가 깨진 것으로 이해 될 수 있고 그 붕괴는 몸 기능에 영향을 준다(Howe, 2001). 고통은 부상의 표시이고 고통은 기분 나쁜 감각이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세포 조직의 피해와 관련된 감정적인 경험이다. 날카로운 고통은 짧고 날카로운 감각은 부상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겪으며 그 후 제한된 기간 동안 경험한다. 만성화된 습관적인 고통은 종종 지속적인 통증을 야기하는 병적인 과정과 연관이 있거나 여러 달의 기간을 두고 재발하는 고통이며 어떤 경우엔 매년 부상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만약 고통이 이미 치료된 후 현재에도 남아 있다면 그 고통은 만성으로 생각될 것이다.

불쾌한 감각,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경험들은 날카로운 고통으로 야기되는 습관적인 고통과 구별되므로 습관적인 고통은 감정적이고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심리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심리학적인 요소가 고통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보기 드문 예외의 고통은 환경적인 요소나 정신 병리학으로 야기되지는 않는다. 이를 습관적인 고통과 비교하여 볼 때 정신 병리학적이거나 환경 요소는 현저한 규칙으로 작용한다. 어떤 부상의 경우엔 날카로운 고통은 행동에 제한을 주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준다. 달리 말해서 습관적인 고통은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위한 통증으로 인지된다.

습관적인 고통과 부상의 시작에 대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정신병리학 이거나 환경적인 요소들이다. 만성으로 존재하는 형태로서 고통은 생리적인 기능이 아니라 심하게 감정적으로 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과 그러한 사회 그룹에 부과되는 부정적인 힘이다. 그러나 관찰된 부상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날카로운 고통을 수반하는 부상이다. 일류선수들이 스포츠화된 태권도 훈련의 특별한 환경 요소에서 날카로운 고통의 역할은 외부세계에서 관찰되었던 만성 고통의 성질을 띤다. 전문 스포츠에서 몸의 움직임이 일반 대중들이 하는 운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같은 스포츠에서 몸 접촉 또는 몸에 상처를 입는 일은 전문화된 스포츠에서 과다한 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는 현대 스포츠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프로 선수다운 움직임을 위한 준비의 한 부분으로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몸은 부상을 당한다. 태권도 경기를 치르는 동안 몸의 가치 때문에 고통에 대한 정신병리학은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부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고통의 촉매가 되는 것은 통증의 개념이다. 통증은 고통을 자극하고 고통은 결정적인 고통을 겪는 부상의 예비단계에 속한다.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만약 태권도 경기 도중 부상이 발생한다면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 선수들은 경기 중 높은 수준의 몰입관계로 인해 부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경기 종료 후 부상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Leder, 1990). 그러므로 대부분의 태권도 선수들은 정상적인 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발전된 몸 행동을 하기 위해 매일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행동

을 위한 몸 습관은 몸을 보이지 않게 관리하게 되며 그러므로 어느 정도 부상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치료 같은 예방 의학을 사용하도록 태권도선수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의 문제들 중 하나와 연관된다. 고통이 시작된 뒤에만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후에 훈련 과정의 변화는 부상을 통한 재활의 가혹함을 제안하게 된다.

부상이 구조적이든 자연의 작용이든 간에 부상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 몸의 부상과 고통의 경우는 즉각적이고 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상의 원인은 기능적인 부상의 경우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스포츠 부상과 관련된 위험은 몸과 정신의 고통을 모두 무시한 결과이다. 달리 말해서 위기는 위험의 신호이지만 위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행동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칠 가능성에 주시하는 게 아니다. 고통에 의해 드러나는 부상 없이 위험을 말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현재의 연구 개념에서 주요 관심사는 왜 태권도선수들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이다. 위험은 부상의 결과로 고통을 통해 알게 된다.

고통의 상호 작용은 단순히 자발적이거나 본능적이 아니라 고통이 생하는 사회 환경에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고통의 형태의 다른 사회적 차이는 스포츠 환경과 구별되는데 간단히 말해 경기를 할 수 있는가와 없는 가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고통의 효과는 자명하지만 태권도선수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고통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깨의 고통은 장거리 육상선수가 경기를 중단하게 할 수 없지만 같은 어깨의 고통이라도 태권도 선수에게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는 더욱 경기에 신중하게 된다. 스포츠 하위문화와 연관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태권도 집단은 고통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면 고통의 경험은 어떤 집단에겐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만 다른 그룹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Curry & Strauss, 1994; Nixon, 1992, 1993a, b; Young, 1993). 반면에 고통을 극복한 선수의 방법은 일반적인 사회 구조의 성 정체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근육주의는 고통을 가치 있게 여긴다.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은 스포츠 하위문화에서 수용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 같이 보일 수도 있다.

White et al(1995)는 이러한 하위문화 집단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지역적 위치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개인의 고통과 대중의 고통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Helman, 1990). 예를 들어 태권도선수들의 심한 고통과 그와 관련된 부상은 관람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경기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같은 팀 동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하위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할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임을 깨달을 때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에 개개인은 자신들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고통에 대한 상호작용과 반응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Kotarba, 1983). 고통을 인내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믿음과 체계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태권도 선수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이 3 단계는 어디라도 존재하며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 사례들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세계에서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되었다.

어떤 고통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거나 참가자 수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나누는 고통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개인과 의료진을 연관지어 준다. 고통이 심각할 때 태권도 선수들은 경기 중 상해를 당하면 경기를 포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습관화 되었을 때 부정적 역기능이 발생한다. 태권도 선수들은 팀에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렵기 때문에 상해를 숨기려 할지도 모르고 또는 전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태권도 선수들이 경기 참여 시 지급되는 성과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지도부는 의료진을 통해 선수들에게 경기 중 부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선수들에게 확신을 요구하려 한다. 두 가지 상황 모두 부상유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화된 태권도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서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전문 미식축구 클럽의 의료진이 있다.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내가 수퍼볼 상금에서 어느 정도 뭇을 가질 수 있을지 매우 궁금했다. 팀이 이기던지 지던지 팀의 의사로서 돈을 받는 것은 매우 눈에 띄는 비도덕한 행동일 수 있다. 만약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이 경기가 가능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진통제를 먹고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의사의 존재에 많은 의문들이 생긴다(Huizenga, 1994).

이런 의문은 다른 일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태권도선수들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진이 직면한 것이다. 스포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의 측면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자.

2. 직업상의 고통

Kotarba(1983)의 저서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전문 선수들을 포함한 다른 직종에서 고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맥적으로 고통을 설명하였다. 그는 선수와 일반 직장인을 대조하였는데 몸의 한계가 최고조에 달할 때와 고통이 위협으로 다가올 때 상황을 대조하였다. 그의 의견을 따르면 고통의 평균 수준은 예상할 수 있지만 좀처럼 드러나진 않는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만약 스포츠경쟁을 통한 일반적인 금액이 예상되는 이익 보다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항상 비판적인 청중으로부터 고통의 경험을 숨기려 할 수 있다. 고통을 드러냄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는 건강을 관리하려는 시도와 누군가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거나 우발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이를 조절하려는 도움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습득한 고통을 드러내는 비용은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비판적인 관객의 어떤 반응은 부끄러움과 죄의식 같은 감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숨기려고 결정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도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각자가 속한 스포츠하위문화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원초적으로 선수가 경기에 긍정적으로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고통을 다루는 그들의 기능 때문에 고통을 다루는 그들의 능력은 선수들의 특별한 스포

츠 하위문화를 가진 다른 선수들에게 적절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선수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 직장인은 처음에 고통을 숨기는 이유가 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특히 만약 그가 속한 집단이 진정한 힘을 가진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Kotarba(1983)가 언급했듯이 고통의 표현에 대한 보상은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직장에 적당한 건강과 가장으로서 능력에 대한 위협 요소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비용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선수와 직장인 모두에게 고통은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형태이다. 선수는 훈련이나 시합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직장인은 일과 관련된 사고나 요통 같은 끊이지 않는 위험이 있다. 달리 말해서 이 두 직업의 하위문화들은 고통을 삶의 한 ‘특징’으로 여긴다. Kotarba에 따르면 한 가지는 ‘상습적인 고통 하위문화’의 원인이 된다.

고통의 형태와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관심 속에 이루어진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순수하게 강화된 민족적인 편견을 비판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가 특정 시간대와 환경에서 발생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Bates(1987:48)는 조사내용이 동양사회에서 집단주의자(collectivist)와 결정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선수 각 개인을 사회 문화적 힘에 쉽게 반응하는 수동적인 집단으로서 비추고 있는 것이다. Kotarba(1983)의 연구는 이런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 스포츠하위문화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 일은 좀 더 활동적이고 비판적이며 반성적인 역할을 하는 태권도 선수 각각의 개인들과 조화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판단과 고통에 대한 반응에 형태를 갖추고 자신들의 비 전문지식과 믿음을 새로 만든 사람들로 비추어진다.

Kotarba(1983)의 연구는 현재 그의 책에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조사 자료들은 최근까지 아마추어에 관련한 것들이다. 유대관계에 있는 스포츠가 아마추어의 이데올로기적인 가치와 프로 선수의 그 반대측면 사이의 연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아마 ‘중요한 레저생활’ (Stebbins 1992)과 관련된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설명한다. 정부 기관들은 개인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몸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했기 때

문에 부상과 고통은 때때로 그들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수에게 초점을 맞춘 Kotarba의 연구는 늘어가는 열정적인 아마추어들(프로화되는 선수)의 수에 부응하였다.

일반적인 태권도선수로서 ‘훈련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언급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태권도선수는 스포츠의 일부가 된 고통과 부상을 수용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도록 했다. 가장 잘 조직된 전문태권도 선수들은 일반적인 고통의 수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문제들에 주어지는 조언은 수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스스로 독학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포츠화된 태권도에서 재생산적인 수준은 과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부상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고통에 대한 어떤 조사라도 근본적인 스포츠하위문화의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통의 수준은 정확하게 부상당한 태권도선수에서 다른 선수에 이르기까지 고통 수준은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부상에 어떤 표시인지 아닌지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Ⅲ. 결 론

전문태권도 선수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결과 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부상과 관련된 고통의 본질이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통의 본질과 의학적인 훈련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초점은 스포츠화된 태권도에서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알고리즘 논의로 주제가 옮겨진다. 본 연구자는 스포츠 의료진은 큰 효과를 보기 위해 대체 약을 사용하길 제안하였고 전문 스포츠에서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할 것을 찾으라고 제안할 것이다. 고통, 부상과 위험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 고통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고통과 위험을 스포츠화된 태권도

와 연관하여 실험할 것인가로 결론지어진다. 이와 같은 결론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관행과 고통의 철학적 본질

고통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고통에 대한 변화’는 향후 책 제목으로 아주 적합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Turner(1992)의 저서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다룬 자연스러움과 문화 사이의 연계성 사이에 존재하는 고통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고통에 반응하는 몸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연구인데 Good(1994)이 주장했던 것처럼 고통의 치유는 종종 서양 의학에서 역으로 발생 하는 경향이 있다. Melzack and Wall(1982)은 그들이 문이라고 칭하는 고통을 조절하는 이론에 대해 일반적인 알고리즘적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구체화된 훈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인간의 심리 과정이 고통의 부산물과 관련된 알고리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몸에 신경체제의 한 부분으로 의학적인 ‘스위치’가 있으며 이는 척추의 근처에 있다고 말한다. 부분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그 알고리즘 스위치를 조절하고 그 스위치는 신경 자극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영향은 Foucault의 저서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의학이 생리 과학에 바탕을 둔 1차원의 물질 환경알고리즘에서 정신적인 주관성으로 구성된 2차원의 환경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Nettleton, 1992). 그러나 구체적인 고통을 알아내는 것은 사회, 정신적인 분야의 고통의 알고리즘에서 찾을 수 있다(Turner, 1992).

새롭게 강화된 의학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안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통의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정신, 사회학의 성분의 결과로서 고통은 강한 의지를 가진 개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주제들로 인해 방해받을 수도 있다(강한 정신력, 인내, 백절불굴). 고통 속에서

도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개인에게 눈에 떨 만한 손상이 없다면 고통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고통에 대해 자신만의 관리를 하는 사회 환경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흥미롭게도 고통의 존재는 데카르트 시대 이후 서양 의학에서 마음과 몸의 이중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강화하는 한 방법의 증거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서양 의학의 중심은 몸과 질병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은 주관적인 경험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환경에 대해 의문은 갖게 했다(Good, 1994). 달리 말하면 ‘고통은 인간을 쓰러트릴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이성적인 고통일지라도 “나” 와 나의 몸은 2개로 분리된 전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은 정신과 육체의 이중성의 경험으로서 묘사된다.’ (Vrancken, 1989; 442). 따라서 고통 속에 있는 몸은 전통적으로 몸에 대한 사회, 과학적인 연구를 손상시키는 이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서양 의학은 몸과 마음 사이의 이중성을 치료하기보다 이를 강조하는데 더 치중했다. 이는 질병 치료의 우선순위를 가능하게 했고 몸과 마음의 분리를 증가하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통이 스포츠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논의되기도 했다. 만성적인 질병 또는 일류 스포츠의 한 부분에서 증가된 깨달음은 부상의 결과와 고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심한 훈련 신드롬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의 사회적 충돌도 야기 시켰다. 모든 인간들과 같이 선수들은 자연과 문화의 한 부분이다(Turner, 1996). 이 관점에서 고통에 대한 몸 경험은 인식의 경험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몸의 고통은 인식과 감정의 중요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Williams and Bendelow, 1998; 161)

몸과 마음의 치료는 분리되어 있다는 서양 의학의 구조 때문에 고통의 경감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 스포츠를 둘러싼 환경과 선수에게 발생하는 순간적인 욕망은 고통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문화는 질병과 인간 경험 사이의 실존 공간에서의 필터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Kleinman(1988)에 의해 제시되었다. 만약 이런 경우의 스포츠 문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지학 접근은 연구자들에게 스포츠 문화를 연구하고 부상을 사회의 반응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을 부여한다.

전문 스포츠 환경에서 고통알고리즘은 그 자체를 만성적인 면으로 명백히 보여 질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 전문 스포츠 환경에서 ‘활동’의 중요성 때문에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고통이 만성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적인 사회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Kleinman, 1988; Murphy, 1987). 반면에 Kotarba(1983)의 저서에서는 이를 직업적인 편견 중의 하나로서 보여 지기도 하는데 전문 선수와 일반적인 사람 모두에서 그 행동은 관찰되고 만성 고통의 힘은 이러한 차이를 확실히 설명한다. 본 연구자의 관심은 편견들이 아니라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발전된 양질의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Williams and Calnan(1996)에 의해 논의되었던 많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행동은 “고통의 완화”이다.

2. 고통완화

고통의 완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인 의학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고통이 의학과 정신의학 같은 의학과 관련된 훈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서양에서 의학 치료는 몸의 고통을 완화하기에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병의 지표로서 고통은 종종 논의에서 무시되어왔다. 단순히 구조와 기능적인 부족의 부산물로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고통알고리즘은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몸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몸적인 행동의 시험을 통해 전문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하는 문화속의 고통의 역할은 이미 결정된 것일 수 있다. 고통알고리즘은 주관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부상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서양문화가 꾸준히 객관적인 사실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고통이 주관적인 본성이라는 개념은 관계

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고통은 환경을 구조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반작용들은 쉽게 상호 작용하도록 한다. 고통의 관찰에서 객관성의 부족은 고통의 사회역할을 연구하는 동안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통의 수준들은 구별하기 어려운데 각 개인들의 고통의 가혹함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전문태권도선수와 유능한 치료전문가들 사이의 주요한 갈등은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치료법 조절의 실패, 고통 판단의 불신과 억제할 능력의 부재, 그리고 증상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이다(Good et al, 1992:8).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몸 부상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나타나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만져볼 것이다. 의료팀은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경기장을 찾을 것이고 부상선수들은 늘어나고 선수들의 부상을 진단하고 이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부상의 본질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진통제”는 부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3. 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능동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라 집산주의적 형태의 수동적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고통알고리즘의 마지막 수단은 몸과 정신의 이중성에서 정신적인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 그 자체의 스포츠하위 문화의 사회 철학적 의미성에 더 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객관화된 불편한 진실인 “진통제”의 효과는 인간 사회의 오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자연치유와 순기능적인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고통완화제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현실은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고통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독특한 스포츠하위문화를 생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몇 십 년 동안 학자들은 감정이 단지 음악을 작고하는 데 쓰이는 신비로운 영감을 가진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생존번식에 필수요소로서 심리적,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오늘날 세계에서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스포츠 역사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이해하려면 태권도경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통알고리즘이 무엇이고 그것이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상의 특성에서부터 의학적 약물치료제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복잡성은 다양하다.

태권도경기현장 속에서 고통알고리즘의 복잡성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종의 예측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무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어떤 선수가 얼마나 좋아할지, 스포츠문화의 특정한 추세가 어디로 향할지, 안 복잡하던 많이 복잡하던 선수가 얼마나 원하는 경기력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태권도경기문화의 모든 예측이 서로 다른 두 가지에 관한 생각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선수는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것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즉, 각각의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 예측이란 지금까지 했던 태권도선수들의 고통경험들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측한 미래의 경험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줄 스포츠알고리즘 속 태권도알고리즘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좋은 이론은 양쪽을 모두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사실상 이중의 양면성이란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할 수 없는 불안이 일어난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포츠현장 속에서 의학적 관행의 미래예측 알고리즘은 진통제였다면 향후 발생할 미래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Bates, M. (1987). 'Ethnicity and Pain: A Bio-cultural Mode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47-50.
- Curry, T.J. and Strauss, R.H. (1994). 'A Little Pain Never Hurt Anybody: A Photo Essay on the Normalization of Sport Injuries', *Sociology of Sports Journal*, 11: 95-208.
- Good, B.J. (1994). *Medicine, Rationality, and Experience: An Anthropological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 M.J.D., Brodwin, P.E., Good, B.J. and Kleinman, A.(eds). (1992). *Pain as Human Experience: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lman, C. (1990). *Culture, Health and Illness*, 2nd edn. London: Butterworth Heinmann.
- Howe, P.D. (2001). 'An Ethnography of Pain and Injury in Professional Rugby Union; The Case of Pontypridd RFC'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33(3): 289-303.
- Huizenga, R. (1994). *You're Okay, It's Just a Bruise: A Doctor's Sideline Secrets about Pro Football's Most Outrageous Team*.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Kleinman, A. (1988). *The Illness Narratives: Suffering, Healing and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Basic Books.
- Kotraba, J.A. (1983). *Chronic Pain: It's Social Dimensions*. London: Sage.
- Leder, D. (1990). *The Absent Body*.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zack, R. and Wall, P. (1982). *The Challenge of Pain*. New York: Penguin.
- Murphy, R.F. (1987). *The Silent Body*. London: Norton.
- Nettleton, S.. (1992). *Power, Pain and Dentistr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Nixon, H. L. (1992).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fluences on Athletes to Play with Pain and Injuri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16: 127-135.
- Nixon, H.L. (1993 a). 'Accepting the Risks of Pain and Injury in Sport: Mediated Cultural Influences on Playing Huer', *Sociology of Sport Journal*, 10: 183-196.
- Nixon, H.L. (1993 b). 'Social Network Analysis of Sport: Emphasizing Social Structure in Sport Sociology', *Sociology of Sport Journal*, 10: 315-321.
- Stebbins, R.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London: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 Turner, B.S. (1992). *Regulated Bodies: Essays in Medical Sociology*. London: Routledge.
- Turner, B.S. (1996). *The Body and Society*, 2nd. London: Sage.
- Vrancken, M. (1989). 'Schools of Thought on Pai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9: 435-444.
- White, P.G., Young, K. and McTeer, W.G. (1995). 'Sport, Masculinity and the Injured Body', in D. Sabo, and F. Gordon(eds) *Men's Health and Illness: Gender, Power, and the Body*. London: Sage.
- Williams, S.J. and Bendelow, G. (1998). *The Lived Body: Sociological Themes, Embodied Issues*. London: Routledge.
- Williams, S.J. and Calnan, M. (eds). (1996). *Modern Medicine: Lay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London: UCL Press.
- Young, K. (1993). 'Violence, Risk, and Liability in Male Sport Cultur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0: 373-396.

Abstract

Taekwondo and Pain algorithm

Kim, Hak-duk(Donggeui Univ)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pain and injury algorithm of taekwondo athletes and was studi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sports medicine from amateurs to professional athletes. We also studied rules related to the body of the taekwondo athletes who participate in competitions. Of course, the body is the most important object here, so it is understood as a tool that must be active in any sporting event. During sports training, if pain and injuries occur to an individual, it will hinder and limit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training. The drawbacks of the competitiveness due to suffering and injury are very important in an environment where sports professionalism, and healthy taekwondo athletes can be sacrificed because of taekwondo support groups who want functional enhancements and the enthusiastic consumer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begin with a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pain and focus on the nature of medical treatment for pain. The contents of the importance of pain relief experienced by athletes participating in a sporting event will lead to a debate about risk. It will also help one to underst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of professional sport, which exists between pain and injury.

keyword : taekwondo, pain, injury algorithm, body

논문투고일 : 2018.09.30.

심사일 : 2018.10.10.

심사완료일 : 2018.10.26.